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| 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
http: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전력산업과 최형기 과장(2110-4897), 성시내 사무관(5529)

6.21(목) 전 국민이 참여하는 『정전 대비 위기대응 훈련』 실시 계획

□ 정부는 6.21(목) 14:00~14:20, 20분간 **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**하는 **『정전 대비 위기대응 훈련』**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.

○ 이번 훈련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 말, 주중 및 일일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목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하여 사실상 실제 전력위기 발생 상황과 동일한 여건 하에 실시하는 것임.

【 훈련 개요 】

◎ 일시 : 6.21(목) 14:00~14:20 (20분간)
◎ 대상지역 : 전국 읍이상 도시지역
◎ 훈련상황 : 폭염으로 인한 예비력 100만~400만kW의 단계별 상황 부여
◎ 훈련 주요내용 : 전 국민 절전 참여 및 정전대비 훈련

□ 금번 훈련은 최근 전력 수급 여건*이 어려워짐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계획단전 상황에 대비하여, 전 국민의 자발적인 절전 참여를 통해 **정전 상황시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**하기 위한 것임

* 때이른 더위 등으로 인해 5월부터 예비력이 400~500만kW에 불과하며, 향후 본격적인 더위로 8월 중순경 예비력은 150만kW까지 하락할 전망

○ 아울러 금번 훈련을 통하여 전 국민의 자발적인 **절전 참여가 확산되면**, 전력수급 상황 악화로 인한 계획단전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함

□ 6.21(목) 오후 2시 훈련 경보가 발령되면 전국의 **가정, 상가, 산업체는 자발적인 절전**을 통해 정전대비 위기대응에 참여하고, **공공기관**은 실제 **단전 훈련**을 시행할 계획.

○ **가정**에서는 에어콘, 선풍기 등 전기 냉방기기 및 다리미,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사용을 일시 중지하고 불필요한 조명을 소등하는 방식으로 절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,

○ **사무실**에서는 자발적으로 조명을 소등하고 중앙조절식 냉방설비의 가동을 일시 중단하는 한편, 사무기기의 전원을 일시 차단하는 절전에 참여

○ **상가·상점**에서는 냉방온도를 높이고, 자동문, 에어커튼과 영업에 영향이 적은 가전제품의 사용을 잠시 중단하는 방식으로 자발적 절전에 참여하며,

○ **산업체**에서는 중앙조절식 냉방설비의 가동을 잠시 중지하거나 온도를 상향 조정하고 컴퓨터, 프린터, 복사기 등 사무기기의 전원을 일시 차단하는 자발적 절전에 참여

○ **공공기관**은 20분간 실제 단전 훈련을 실시할 계획임.

□ 또한 **7개 대도시**에서 **자발적으로 참여**하기로 한 공동주택, 상업용 건물, 산업체, 학교(시별 각 1개소, 총 28개소)에 대해서는 **시범 단전**을 실시하여 실제 전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예정

○ 시범 단전 시 비상발전기를 보유한 공동주택, 상가, 산업체는 훈련 기간 동안 비상발전기를 점검하고 자발적으로 가동을 실시

○ 아울러, 승강기 갇힘 구조 훈련, 병원·지하철 정전대응훈련, 교통통제 훈련 등 **각종 정전 대비 가상 훈련을 함께 실시**할 계획임

□ 지식경제부 이관섭 에너지자원정책실장은 "금번 전력위기 대응 훈련은 계획정전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제와 같은 상황에서의 훈련이므로 **전국민이 침착하고 적극적으로 참여**해 주실 것"을 당부

○ 지경부는 금번 훈련 결과를 토대로 비상시 조치 계획의 미비점을 보완, 개선해 나갈 계획